

예레미야, 하나님과 화해된 마음 (애 3장)

I. 예레미야 애가, 3장

- A.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538년에 기록되었으며, 3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스 7:3, 5),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 B.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웨퍼는 "예루살렘 성의 죽음" (Death in the City)이라는 책으로 현대 사회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당시의 예루살렘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정리했다.
1.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 종교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국가적인 일을 하나님과 결부해서 해석치 않음
 2.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동의된 메시지만 말함
 3.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함**: 현대의 Post-Christian 세계(기독교가 더 이상 세계를 이끄는 종교가 아니며, 무신론과 세속주의로 대체됨)와 동일한 모습
- C.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위로받을 곳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심을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그 분만이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된다.
- 18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애 1:18)**
- D.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17절). 재난이 임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볼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다.
-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애 2:17)**
- E. 예레미야 애가 3장은 1, 2장(각 22절)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극심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온 예레미야의 삶이 귀하게 나눠지고 있다. 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 깊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며 (애 3:33절; 렘 29:11), 큰 어려움과

고난으로 실족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화해한 한 인생의 깊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아래 구절들을 기록하며 후대에 남긴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 3:33)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F. 애가 3장의 1-20절까지는 예레미야 자신이 겪은 고난과 낙심함을 노래하며, 21절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예레미야의 노래가 이어진다 (21-39절).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재난을 겪은, 혹은 그 재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21-39절의 고백은 우리 각 성도가 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보석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다.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애 3:18-19)

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 3:22-23)

G. 예레미야는 눈 앞에 보이는 재난과 고난의 강 저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강을 발견했고, 그 강이 자신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강임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H.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 3장 1-20절에서 자신과 예루살렘은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듯한 상황을 겪었으며,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백한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환경을 겪은 적이 있는가? 성경은 때로 우리의 상황과 심정을 언어로 잘 표현해주기에,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다.

7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애 3:7-18)

I.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와 유사한 절망과 고난의 끝에 닿은 인간의 고백을 하셨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다 지나가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히 4:15).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 27:46)

- J.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일을 바라볼 때 이미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그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21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한다. 이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도 동일하다 (롬 8:38-39).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 3:21-23)

- K.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계 1:7).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강하게 비추고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전혀 그분의 분량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애통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계 5:2-4).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의가 얼마나 부족함을,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 24:22).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7)

- L.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을 기업이 이 땅의 무너질 것들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24절, 레위인들의 유업) 여호와로 인해 만족함을 노래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선하심과 구원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릴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로 인해 치유된 내면을 노래한다 (25-26절).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영혼에게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림이지만,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영혼은 그분을 기다림이 소망이 된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 3:24-26)

- M. 예레미야는 소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다른 이들은 젊어서 겪지 않았을 고난을 경험했기에 이를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메우신 멩에이기에 “좋은 일”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 겸손히,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며 섬길 것을 고백한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말이다 (27절).

27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멩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²⁹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겸손히 엎드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애 3:27-29)

- N. 예레미야의 다음 고백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힌트를 제공한다 (마 5:39).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30절의 상황에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며 (31절), 우리가 때로 비록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삶이 괜찮을 것이라고 노래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해한** 마음을 노래한다.

³⁰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³¹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³²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³³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 3:30-33)

- O.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당장 눈 앞의, 또는 과거의 어려움을 두고 삶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했기에 그분의 “결국”**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적용]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새롭기에, 잠잠히 그분을 믿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임을 알아서, 예레미야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이 유업(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심!)을 전수해줄 수 있어야 한다.

- P. 예레미야는 3장 후반부에서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것을 노래하며 (40-47절),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눈물을 나누고 (48-51절),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지시고 말씀하신 일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과 모사하는 자들을 멸절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마무리된다 (52-66절).

⁴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⁴²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 공동체는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 (애 3:40, 42)

⁴⁸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애 3:48)

⁵³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이여 ... ⁵⁷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 ⁶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애 3:53, 57 64)